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AI 특별 방역기간 돌입

전 세계 발생 감소 추세, 국내 발생 잠재력은 아직도 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된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

고 매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년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 32건(H5N1, H5N6형)이 발생하여 367만수(산란계 267만수)의 닭들이 살처분된 바 있다. 선제적인 예찰과 살처분 범위 축소 조치로 발생에 비해 피해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해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철새 이동경로에 있는 대만에서는 하절기에도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동남아 등은 아직도 상재국가라는 점은 발생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은 해외의 발생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다. 1~8월까지 세계적으로 가금농장 발생은 전년에 비해 67.5%나 감소했으며, 야생조류 발생건수도 8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H5N1형 비율도 2022년을 정점으로 찾아들고 있어 국내 유입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철새들로부터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 검사 강화는 물론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소독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개편 및 방역에 취약한 지역과 농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살처분 범위는 관리지역(500m) 내 전 축종을 살처분 하던 것을 육계, 원종계, 순계와 방역기준 '가'유형을 받은 산란계(산란종계 포함)는 선택적 살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화된 내용이다. 또한 계열사에는 책임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에 참여를 잘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살처분 제외, 일시이동중지시 계란반출 허용, 점검 제외 등)를 부여하여 자발적 방어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방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소독조를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메시지를 발송하여 미소독 차량이 농장 출입을 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에서는 변화되는 방역 지침 등을 숙지하여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 산란성계육 수출 차질 지속

정부 원활한 수출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산란성계육 수출이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산란성계 수입 국인 베트남이 검역위생조건을 강화하면서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 5월부터 자국내로 들어오는 가금육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뉴캐슬병, 살모넬라, 대장균 2종을 검사 항목에 추가하면서 6월 이후 베트남 정부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선적하려던 물량의 전면 구매 취소는 물론 기존 수출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폐기처분하면서 산란성계 수출에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산란성계육은 과거 '노계'로 불리워졌으나 2010년 베트남에서 노계닭, 폐계닭 등 안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한 동안 수출에 차질을 가져왔고, 대책의 일환으로 본회에서 명칭을 '산란성계육'으로 바꾸면서 다시 수출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살모넬라 균이다. 하지만 아무리 산란성계육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생을 강화하더라도 닭 내장부위에서 검출확률이 높고, 150개가 넘는 살모넬라균을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산란성계육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수출에 지속적인 차질을 보일 경우 국내 산란계 업계에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수가 이미 8천만수를 육박하면서 과잉생산체계에 돌입해 수출부진으로 넘쳐나는 산란성계육은 갈 곳을 잃게 된다. 이미 햄원료로 각광을 받던 산란성계육은 2017년 계란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종계성계육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수출관계자들은 베트남의 검역정책을 변경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큰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CP사 등 해외 계열사들의 수출 공략도 이루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 제품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절식을 통해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출빈도를 낮추고 도계장에서도 보다 철저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각도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모넬라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균들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상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